# Ⅰ. 序 論

지난해말 外換危機를 시작으로 IMF 救濟金融이 전개되면서 시작된 현재의 構造的 變化는 그 변화의 정도와 폭이 過去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으로 우리나라 經濟 및 金融市場의 環境을 매우 빠르고 거세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내 일부 금융기관의 構造調整이 이루어지면서 安全性이 높은 대형 금융기관으로의 자금이동이 이루어지고, 상품의 수요도 단순한 高金利보다 安全性과 流動性이 겸비된 상품으로 옮겨지고 있다.

한편 '91년말부터 본격 시작된 金利自由化가 거의 完全自由化 段階 水準까지 이루어졌고, 生命保險의 價格自由化도 상당수준 진전된 상황이다.

本硏究에서는 가격자유화 진전에 따른 豫定利率의 範圍料率制 및 向後 自由料率制에 대비하여 우선 과거 우리나라 生命保險 豫定利率水準을 資産運用收益率과 연관하여 安全性 여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생명보험 예정이율을 傳統型商品의 예정이율과 별도의 附利利率이 적용되는 金利連動型商品의 連動金利로 구분하여, 특히 金利連動型商品의 예정이율에 있어서 연동금리의 基準金利를 중심으로 생명보험 고유의 長期的 安全性과 타금융상품과의 競爭性을 고려한 現實的 豫定利率 體系의 한 형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豫定利率 安全性 分析에 기초한 시산적인 豫定利率 體系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豫定利率의 自由料率制度 導入時, 각 생보사들이 自社의 資産運用 實績과 市中金利의 충실한 반영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安全하고 現實的인 豫定利率을 적용할 수 있는 한 方法의 기본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本硏究의 핵심적 사항은 豫定利率의 安全性을 資産運用收益率 側面에서 比較分析해 보고, 동결과 및 현재 제외국에서 활용중인 豫定利率 算出 形態를 응용하여 구체적으로 金利連動型商品의 豫定利率 算出

形態를 제시하였고, 끝으로 현재의 會社債收益率을 대신하여 基準金利로 활용할 수 있는 代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主要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序論에 이어서,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의 最近 金融市場 環境變化를 자금이동 및 주요금리변화 추이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生命保險商品 豫定利率 體系의 現況 및 問題點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제도상의 限界 및 代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의 生命保險 豫定利率 體系의 골격과 그 운영체계를 要約·整理하였다. 제Ⅴ장에서는 豫定利率의 安全性을 正規分布를 이용한 평균-분산 모델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제Ⅵ장에서는 資産運用收益率과 豫定利率의 關係를 통해서 基準金利및 그 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연구는 현행 豫定利率 體系의 問題點 분석에 기초한 豫定利率體系의 科學化 및 現實化를 圖謀하고 이를 통해 生命保險의 固有金利體系 確立의 한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향후 保險商品構造와 資産運用 형태 변화의 경우에 요구되는 豫定利率의 調整時 한 基準 役割을 제공할 것이며 이를 이용한 彈力的인 料率適用體系의 기본틀로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